

코스피 1,500 시대... 잇달린 '안착' 공방

“1,600선도 가능” 장밋빛 전망에 “진통 클 것” 우려도

9일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넘어서는 신고가를 기록함에 따라 이제는 지수가 1,5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수 1,500선 안착을 놓고 긍정론과 신중론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1,500선 돌파 당연”=증권 전문가들은 그동안 시장에 부담을 주던 각종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지수가 1,500선을 돌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세상승의 마지막 관문인 1500선에 안착한다면 대세상승에 무게가 실리면서 밸류에이션이 급하게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심재업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돌파한 이후 추가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길게 보고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한국 증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책 효과와 기업실적 개선기대, 글로벌 증시 상승, 저가매력 등 4가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연구원은 “단기급등으로 단기적으로 지수가 1,500선을 돌파할지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



지만 FTA 타결과 북미 관계개선,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감,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 등 각종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 내 1,500선 돌파는 물론 1,600선을 향해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착 실패하면 급한 조정 물속도=그러나 1500선 안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당장 1·4분기 기업실적이 편안하지 않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복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500 돌파 후 흥분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적이 예상치에도 못미친다면 시장의 반응은 예상외로 빨리 차가워질 수 있다. 때문에 1500 돌파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안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2분기와 하반기 기업이익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증권 오현석 투자정보파트장은 “지수 1,500선 돌파와 1,500선 안착은 다른 의미”라며 “지수 1,500선 안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실적모멘텀 등 ‘+α’가 있어야 한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당초 예상을 많이 밑도는 실적쇼크가 발생하거나 시장참여자들이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될 경우 1,500선 안착에는 진통이 따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이젠 재무설계 시대

개인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재무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주일보사는 지역민들의 재무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FP(재무설계)협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무료 재무설계 강연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개인 재무설계 시대를 맞아 재무설계의 개념과 장점, 광주지역에서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재무 리스크 최소화 맞춤형 재테크 전략

① 재무설계란?

저금리와 고령화 추세속에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설계(파이낸셜 플래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재무설계란 개인의 소득·연령·가족 상황 등 개별적인 재무상황과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재무계획 및 인생설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현실에 맞게 재무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재테크 전략인 셈이다.

9일 한국FP(재무설계)협회에 따르면 미국·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재무설계가 도입돼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인 CFP와 AFPK 등이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단계별로 재무설계를 해주는 ‘가정 재정주치의’제도가 정착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부 사설 재무설계 회사들이 고객 등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상 개인재무설계사 등 전문가들에

의한 재무설계는 개인 삶의 리스크별로 은퇴·보험·투자·부동산·장기간병·상속·세금·교육 등 8개 종류로 세분화해 제공된다. 또한 모든 재무설계는 재무목표 설정부터 개인 재무제표 분석 및 평가, 재무설계안 실행 등 6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재무설계가 필요한 상황은 ▲스스로 개발한 재무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원할 때 ▲상속, 중대질환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재 재무상태를 개선할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 등이다.

생애 전반에 관한 재무설계를 갖게 되면 미국·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재무설계가 도입돼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인 CFP와 AFPK 등이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단계별로 재무설계를 해주는 ‘가정 재정주치의’제도가 정착돼 있다.

한국FP협회 김인호차장은 “재무설계는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나만의 재무전략을 짜고 꾸준히 실천해 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한다”며 “그런 면에서 안정된 미래를 겨냥한 장기 재테크 전략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울모터쇼 가장 비싼차는 ‘벤틀리’

대당 2억8,000만원

2007 서울모터쇼에 전시된 252대의 차량 가운데 가장 비싼 차는 벤틀리의 스포츠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벤틀리가 한국시장 출시를 앞두고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벤틀리 콘티넨탈 GT와 콘티넨탈 플라잉 스피어는 대당 가격이 2억8천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킨텍스에서 전시된 차량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1천만~2천만원의 추가 옵션을 더하면 차량 가격은 3억원에 이른다. 6L, 12기통 트윈 터보차저의 엔진 성능과 6단 자동변속, 최고출력 560마력을 자랑하는 이들 차종은 최고시속이 312km로 벤틀리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4인승 모델이다.

고가차량 3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500 4매틱(MATIC)으로 2억960만원이다. 벤츠의 대표모델인 S클래스의 뛰어난 승차감에 상시 4륜 구동시스템인 4매틱을 장착, 안전성과 다이내믹한 스피드를 동시에 맞출 수 있다.

포르세 911 터보는 3.6ℓ의 배기량에도 불구하고, 최고시속 310km,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



km 도달시간이 3.9초에 불과한 꿈의 스피드 카이다. 가격은 2억441만원.

아우디가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S 등급을 부여한 아우디 A8도 눈여겨 볼만 하다. 1억8천130만원으로 고가차 5위에 자리한 이 차는 최고출력 450마력,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시간이 5.1초에 불과한 프레스티지 스포츠 세단이다.

/연합뉴스

‘한미 FTA’로 통상마찰 감소

코트라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에 미국 통상 관련 요구들이 대체로 반영돼 이 협정 발효 시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TRA, 사장 홍기화)는 지난 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장벽 연례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와 현재까지 공개된 한미 FTA 협상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업체의 불만사항이 한미 FTA를 통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산물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35% 이상

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산물(사과, 쇠고기, 통조림, 복숭아, 오렌지)은 FTA 협상을 통해 장기철폐 또는 계절관세 등의 형태로 양허됐다.

미국 측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8%의 자동차 관세 철폐 및 배기량 기준 세계 개편, 자동차 표준화력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 마련 요구도 세계단계의 간소화(3단계) 및 특수세 5% 단일화, 자동차표준 작업단 설치 등 형태로 미국측 요구가 관철됐다.

NTE 보고서에서 지적돼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일시적 복제권의 저작권자 권리 소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 및 서적·DVD 등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연합뉴스

대주주 ‘대박’ 속출

1분기 100억대 차익 11명

지난 1·4분기 일부 종목들이 단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대주주의 ‘대박’ 사례가 속출했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상위 30개사의 최대주주 주식보유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100억원대의 평가차익을 낸 대주주가 총 11명에 달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클스의 최대주주 박권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평가차익이 748억원에 육박했다.

100억원대 차익을 실현한 11명의 개인 혹은 법인 가운데 박권씨와 액티팩스 최대주주 조지현씨부터 화제를 끌고온 구본호씨가 단연 돋보였다.

박권 대표는 지난 1·4분기 아이클스가 327.5% 급등한 덕분에 지난해말 주식 평가액 155억1천만원에서 6월 종가 기준 평가액이 927억원으로 증가, 1월 장내의 주식 추가매입 비용 24억여원을 제외하면 평가차익이 무려 747억9천만원에 달했다.

구본호씨 역시 기준 보유주식과 전환사채(CB) 전환에 따른 신주 차익을 합칠 경우 같은 기간 총 보유주식의 평가차익이 492억4천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4.4분기 인수한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각이익 및 주식평가차익 500여억원을 반영할 경우 합산 평가차익은 1천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삼성 스틸스청소기와 로봇청소기

이머 로봇청소기는 80만원, 70만원이다.

삼성전자가 9일 출시한 2007년형 하우젠 스틸스청소기(2종)와 하우젠 로봇청소기(2종)를 한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스틸스청소기의 시판가는 28만5천원, 25만5천원(삼성광전자 제공)

재계, 임기말 ‘親 노동정책’ 제동

경제5단체, 연령차별금지법 등 우려 표시

재계가 최근 참여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노동 보호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임기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보호정책들이 “기업 인사체제와 노동·고용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급격하게 친(親)노동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9일 오전 경제5단체 부회장이들이 노사관계 주무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요청에 따라 긴급 회동을 하는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그 때문인지 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

된 성명은 그동안 이런 간담회에서 나온 성명보다 상당히 길이가 늘어나 A4지 5쪽에 달했고, 성명을 발표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어조도 강했다.

김영배 부회장과 이동용 경총 전무는 이상수 장관이 노·사·정 3자가 균형을 맞춰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노동 보호정책과 관련해 최근 양대 노총측과 만남을 갖고 노동계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한 정책임이나나 구상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들 직무 종사자에게 노동2권

또는 노동3권을 주자는 정책구상이다.

특히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연령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정년 연장효과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배 부회장은 “국내 대부분 기업은 연공서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연령차별 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 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와 노동시장 확립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최근 논평에서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규정할 경우 현재 기업들이 자체 설정한 정년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결국 이는 정년연장의 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니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범우	영업관리, 영업지원 사무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955-7885
한국광산진흥협회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 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4/11	062-605-9612
㈜비로콜	인바운드 상담원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11	062-369-1221
하나에드런	광고 실사 디자이너(초보자 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62-974-0041
㈜광주은행	경리/일반사무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4/13	062-239-5320
뉴비이오	재고관리, 상품 입고출고 관리 담당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62-973-6995
삼성화학	영업부서 직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4	062-951-8001
㈜신광씨빙	생산직 및 매키자인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4	062-232-2478
㈜엔투스닷컴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증 소지자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514-2818
풍일산업	경리업무자 및 총무 업무자 사원	고졸/경력1년	1400~1600	04/15	062-941-7891
대신네트웍스	시군구 혁신관리 및 초과근무술루션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223-8282
광주인텔스	품질관리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16	062-944-0111
㈜그린벨	KTF 광주점서비스센터 SHOW 정규직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8	042-223-4900
동아오조카	포카리스웨트의 자사제품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0	061-745-577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